

3. 아모스 -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

아모스 1:1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5:21-24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문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7:7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는. . .

아모스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장황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 왕국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는 남 유다에 속한 사람이기에, 유다왕 웃시야 시대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시대가 가지는 의미와 2년 전 지진이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이상’을 받은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 두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는 국경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

다.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을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는 마치 남한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 놓는 일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무모하고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왜 아모스가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

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모든 나라의 죄악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니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에게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8절을 보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무서운 비밀을 아모스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보이신 것을 선포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 말은 심판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의 직업이 ‘목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목자’라는 말이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목자’를 이야기 할 때는 두 종류로 나뉘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때, 목자는 ‘로에’라는 말로 작은 동네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분이 평범한 사람으로,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사람과 구별되는 직업이죠.

또 하나의 ‘목자’는 히브리어로 ‘노케드’라고 하는데, 이는 대규모의 가축을 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왕실의 재산인 가축 돌보는 일을 외부 목자에게 위탁하는 커다란 목축 사업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모스를 ‘드고아의 목자’라고 했는데, 이 때 목자란 ‘로에’가 아닌 ‘노케드’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 하자면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흥미롭습니다.

별 볼일 없는 목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부음을 받았고, 큰 사업을 하던 목자 아모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은 직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림줄로 심판하신다. . .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고 기준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면 심판이 투수의 공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투수들은 곤혹스러워합니다. 현명한 투수는 그날의 ‘존’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에 맞춰 자신의 구위를 조절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해설자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심판이 조금 이상합니다. . .’

정말 이상한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보니 심판의 판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점을 유심히 보고 휘슬을 부는지를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역시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보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웃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장모가 세 명의 사위 중에서 누가 가장 자신을 위하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장모는 먼저 첫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로 산책을 나갔다.

산책하던 중에 갑자기 장모가 강물로 뛰어들었다. 첫째 사위는 재빠르게 장모를 구했다.

다음 날 사위의 집에는 ‘장모로부터~’ 라는 메모와 함께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장모는 또다시 물에 뛰어들었고, 두 번째 사위도 어김없이 장모를 구했다. 다음 날 두 번째 사위의 집에도 첫째 사위와 같이 메모와 함께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은 셋째 사위의 차례. 장모는 셋째 사위와 강가에서 산책하다가 또다시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셋째 사위는 장모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 버렸다. 장모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셋째 사위의 집에는 최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자네의 장인으로부터~.” ^^

장모에게 판단을 받든, 아니면 장인에게 판단을 받든 판단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판단하실 때가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it’s not fair!” 혹은 “it’s unfair!” 공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고

평하지 않다는 말과 감정이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것’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정의롭게 살고 정당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이 공평하지 않음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은 달라스 윌라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할까요? 교회에 갈까요?”

그런데 윌라드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나라로 빨리 이끌어 주는 것도 없답니다. . .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눈앞에 있는 옳은 일들을 시작하라

- * 기쁘게 부지런히 일하라
- *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라
- *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 주기 위해 이메일에 재미있는 문구를 끼워 넣으라
- *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라
- * 사과하라
- * 넉넉히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 모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
- *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끼어들 때 양보하라
- * 까다로운 사람들을 참아 주라
- *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라 (존 오토버그의 [관계훈련] 중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나라의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이유, 그로 인하여 그가 미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아모스 5장 21-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선포하면 불의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정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불의한 일에 상응하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드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배하는 소리를 그치라고, 찬양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게 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모습으로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 하며 ‘위선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그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아주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 '백성됨'이 사라진 것입니다.

풍요 속에 참된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오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거지가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데, 목사님의 집 근처에는 홈리스들이 노숙하는 공원이 있었답니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어 부유한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번지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발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증받은 옷을 입고 있어서 멀쩡하게 보였지만 샌들 사이로 비친 그들의 깨진 발톱과 찢지 못한 발이 그들의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에 "사지 멀쩡한데 왜 도와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상처 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깨어진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요?

우리들의 눈에는 마음에 구멍 난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지극히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 ."

그런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이기적인 마음들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아픔의 골들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에 보면,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믿으며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이야기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이 세상의 부와 가난의 존재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 죽어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때,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글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이 세상의 불공평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했던 생각이,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평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

습니다.

그전까지 생각한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세 명 앞에 놓인 3개의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3개의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라!”

나눔, 바로 이것이 세상의 공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나눔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축구선수로서 이영표 선수의 경험입니다.

“공을 소유하라!”

언뜻 들으면 공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축구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혼자 공을 소유라’가 아니라 ‘빨리 패스해서 우리가 공을 소유하자’ 다.

패스하는 것이, 즉 공을 다른 선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 상대팀 선수로부터 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22명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90분 동안 플레이하는 경기다. 하지만 실제로 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진행하는 플레이 타임은 60분이 채 되지 못하고 22명의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불과 2분 30초 밖에 되지 않는다. . .

축구를 즐길 줄 아는 최고의 선수일수록 소유, 곧 드리블은 패스 줄 곳이 없다고 판단될 때 쓰는 마지막 선택 카드일 뿐이다. . .

채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나눔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채움과 나눔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진 단어임을 알 것이다.

소유에 집착하느라 드리블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패스가 곧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다.

축구를 잘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우리가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나누라.

많이 나누라.

더 많이 나누라.

게리 토마스는 [일상영성]이라는 책에서 ‘정욕의 유혹’이 일어나거든 의식적으로 그 장단점을 따져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정욕’이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회개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의 기준이 이미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회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발각당하거나 시인하는 수치심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고통을 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런 자신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아는 것이다.”

1)아모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 양 떼를 떠난다(1:1, 7:12~15)

아모스는 직업적인 선지자나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독자들에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끄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고 말한다.

그의 양 떼는 다른 나라, 즉 남쪽에 있는 경쟁 국가인 남유다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던 일을 그만둔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고향 드고아를 떠나고 자신의 조국 유다도 떠난다. 그는 고향에서 북쪽으로 30킬로미터쯤 여행하여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벧엘 성으로 간다. 그곳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 중 하나였다.

2)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2:1~3:15)

아모스는 솔직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켄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2:6~7)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2:13~14)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강했고 번성했다. 낙관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그러니 아모스가 전한 음울하고 불길한 메시지를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

3)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다.(4:1~13)

“너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 성경시대에 시리아 남부에 있는 바산의 가축들은 잘 먹이고 잘 길러서 튼실한 최고의 상품으로 유명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도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4:1~2)고 말한다.(이 장면은 앗수르 군사들이 포로들의 코나 입술을 갈고리로 뚫어 밧줄로 연결하여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려고 애쓰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다. 메뚜기를 보내 과수원을 먹어치우게 하셨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4:8, 12)고 말씀하신다.

4)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5:1~27)

이미 늦은 때인데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길을 바꿀 기회를 주신다.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5:6)라고 호소한다.

유대인들이 불의를 그치고 의로운 삶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 썩은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5:22~2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하는 것이다.(5:24)

5)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측량하시다(7:1~17)

이스라엘은 비뚤어진 나라였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아모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7:7)

이 다림줄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성벽은 비뚤어졌다. 비뚤어진 모든 성벽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도 무너뜨려야 한다.

문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성벽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촉발하신 전쟁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고 말씀하신다.

6)이스라엘의 재건(9:11~15)

이스라엘이 회개를 거절한다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멸절하실 수도 있고 살아남은 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신다.

그 대신-심판이 임하기도 전에-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다:“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9:11)